

# “평범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성공사례담 4년의 모든 것



건강관리 성공사례담을 처음 취재하고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은 '86년 2월의 일이었다. 그 후 총 47회에 걸쳐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한 사례나 집단 건강 검사가 행해지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자는 정기 건강 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수 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현황과 국민의 보건 의식 수준 등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4년여의 취재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을 몇가지 얘기함으로써 건강관리 성공 사례담 취재의 원래의 목적대로, 앞으로의 국민 건강관리 정착을 위한 노력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자신이 겪는 일을 계기로, 모든 이들의 건강관리가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선한 사람들

기자는 취재를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사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가족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주 작은 부분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나누는 소시민적 생활의 투박하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들 중의 더러는 취재라는 단어나 사진촬영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과 긴장감과 호기심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사진촬영을 거부하기도 했다.

실례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현재는 아주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K양을 취재할 때의 일이다. 그녀의 부모는 K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잡지에 사진이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고집했다. 그 바람에 결국 그녀의 사진은 온통 뒷모습 밖에 찍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녀의 부모들도 K양의 사례를 계기로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검사가 현실화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한결같다는 점이다.

건강관리 성공사례담  
총 47건 중,  
자궁암 10건,  
간기능 장애 9건,  
간염 3건,  
신장질환 8건,  
위장질환 8건,  
당뇨병 2건  
사업장 및 집단검사  
현장 13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 아프거나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사를 받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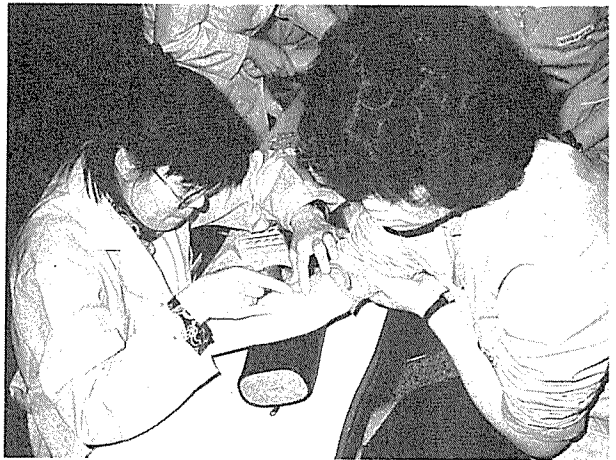
취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직장의 집단검사, 우연한 기회였다는 것이 었다.

공통적인 대답은,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이 었는데, 특히 어른들의 경우에 더 많이 그런 대답을 해왔다.

또 밖에도 자신의 건강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정기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이상을 자각하고, 그 때에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했음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은가.

우연한 기회에라도 건강검사를 받고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행운(?)을 잡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다.



## 간기능 장애, 자궁암, 심장질환이 성별, 연령별 주요 관리대상 질환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는 질병의 양상도 살펴볼 수 있었다.

성인, 특히 남자의 경우는 간기능 장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자궁암, 어린이의 경우에는 심장질환 등이 주요 관리 대상질환이었다고 판단되며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문제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린이 비만증, 당뇨병 등의 소아 성인병이었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연령별, 성별로 건강관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보다 중요한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건강관리, 즉 평생건강관리의 제도적 정착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럴때 부터의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

또한 성인이 되어 나타난다는 소위 성인병의 발병 원인이, 대부분 어릴 때 부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건강관리, 즉 평생  
건강관리의 제도적  
정착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올바른 보건교육과 그에 상응하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도가 시급히 정착 되어야 한다.

이 밝혀지면서, 어릴 때 부터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성인병이 이제는 어릴 때 이미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 어린이 성인병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사, 더 나아가서 평생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정착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 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 검사전문기관도 필요. 치료기관과 상호협력도

취재 동안 절실히 느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의 보건 의식 수준과 보건교육의 필요성이었다.

특히 직장에서의 집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건강검사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나는 건강한 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 다음에 아프면 받죠.”, “필요한 것은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왜 건강검사가 필요한지 설명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보건 교육의 문제이다. 즉 국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



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적절한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의식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치료전문기관이 있는 것처럼 검사 전문기관도 필요하며 상호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에 적절한 의료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90년대엔 모든 건강문제가 해결되길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헌정 시·도지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 해 살고 있는 우리 서민의 모습을 보아 오면서 그들이 원한다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건강하고 걱정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를 향한 희망의 세대인 '90년 대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건강하고 근심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자.